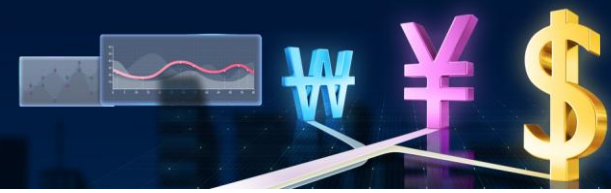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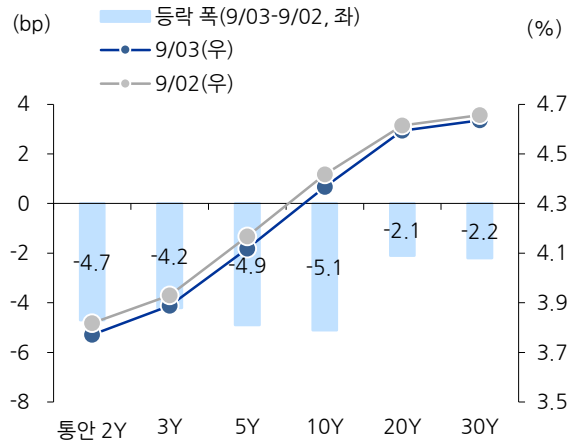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FX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9/3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888%	-4.2	13.3
	한국 국고채 10년물	4.367%	-5.1	12.9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47.9	48.8	48.3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3.14	19.0	-37.0
	10년 국채 선물(LKTB)	105.20	45.0	-113.0
	미국채 2년물	4.339%	-3.1	10.6
	미국채 10년물	4.769%	-1.1	9.2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43.0	41.0	44.4
	독일국채 10년물	3.355%	-3.1	9.1
	호주국채 10년물	5.155%	-4.9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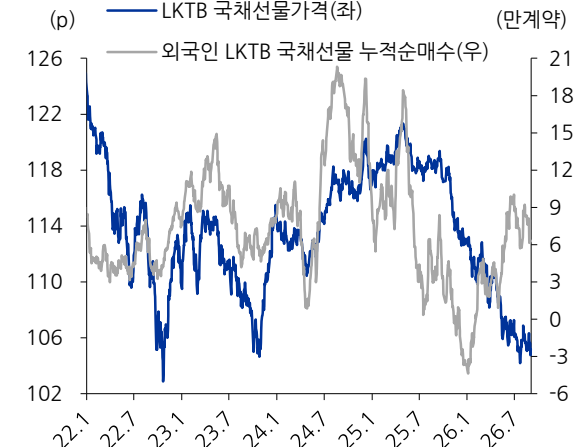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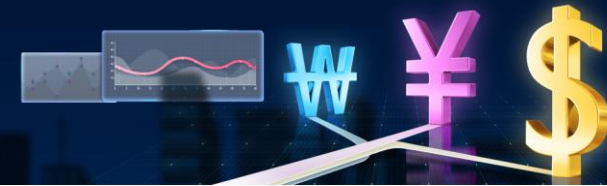
- 국내 채권시장 불 스티프닝 마감. 최근 약세 되돌림.
- 특별한 국내 요인 없었던 가운데 대외 흐름 등에 연동되며 최근 상승폭 되돌리는 모습.
- 간밤 미국 금리 하락세에 이어 아시아 장에서도 미국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에 연동되며 국내 금리도 하락. 국제유가 역시 장중 소폭 하락했고, 일본 금리도 대폭 하락하는 등 글로벌리 최근 금리 상승이 일부 되돌려졌음.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불 스티프닝 마감. 월러 이사의 발언 영향.
- 개장 초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에서 최근 디스인플레이션의 일부 징후를 보고 있으며, 향후 2주간 발표되는 지표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동결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단기금리 위주로 빠르게 하락. 이런 개선이 일시적이라면 인상이 적절하다는 것도 언급했으나 시장은 전자 발언에 집중하며 반응.
-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호조를 보였고, 하위지수인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리 상승폭 일부 반납 마감.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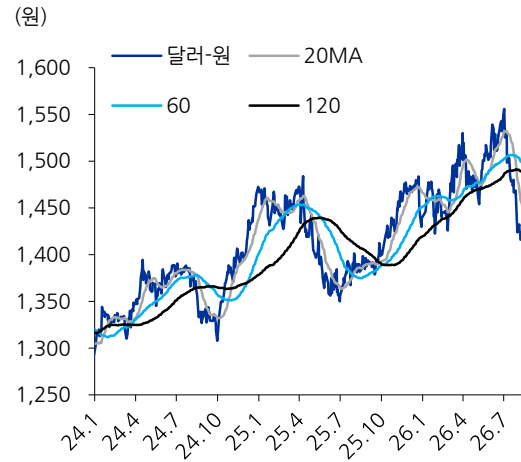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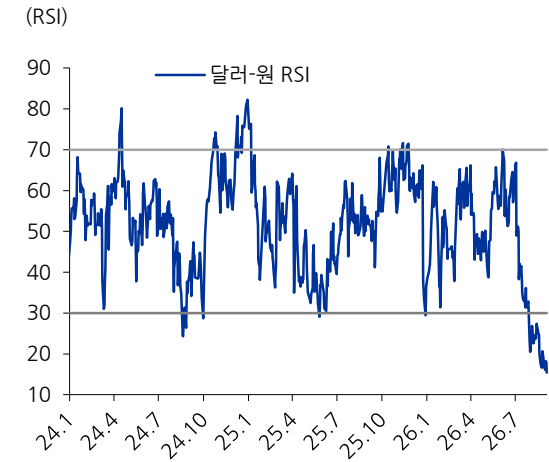
(단위: %, \$)

		9/3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359.30	-0.7%	-1.6%	-5.5%
	달러지수	99.00	-0.6%	-0.1%	0.7%
	달러/유로	1.16	0.3%	-0.2%	-1.0%
	위안/달러(역외)	6.72	0.0%	0.0%	-3.8%
	엔/달러	155.81	-1.8%	-2.2%	-0.5%
	달러/파운드	1.35	0.3%	-0.5%	0.5%
	헤알/달러	5.10	0.2%	-1.2%	-7.5%
상품	WTI 근월물(\$)	91.30	0.3%	9.3%	59.0%
	금 현물(\$)	4,477.22	2.0%	-2.6%	3.7%
	비트코인(\$)	81,810	5.5%	2.4%	-6.9%

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엔화 강세와 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9.40원 낮은 1,359.30원 마감(야간 1,357.50원).
- 간밤 달러-엔은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 전 거래기관에 환율을 문의하는 '레이트체크'가 있었을 가능성 제기되며 급락. 美日 당국의 개입 경계감 높아지며 원화는 엔화 강세 연동되며 상승.
-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와 중공업체 수주 공시에 따른 추가 환해지 기대도 달러-원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최근 日 당국자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개입이 아닌 실제 BOJ 금리인상에 의한 엔화 강세 기대 높아짐. 한편 미국은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연준 9월 동결 기대 재차 상승.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환경.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엔화 강세와 월러 이사 비둘기파적 발언에 급락(DXY -0.6%).
- 엔화는 日 외환당국의 레이트체크 의심 속, 미무라 재무관이 환율에 대해 '아무것도 만족하지도, 안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발언하자 급등. 뉴욕장 달러-엔 155엔대 도달(올해 2월 이후 최저치).
-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지표에서 마침내 일부 디스인플레이션 신호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금리 동결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 이에 시장이 반영하는 9월 연준 인상 가능성이 50%까지 낮아졌고 달러는 하락.
- 금일 美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잭슨홀 이후 재차 9월 금리 동결로 기대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 속 주목할 필요.